

#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6. 3. 27.(금)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16.

나. 제안자: 이강구 의원

다. 회부일자: 2026. 3. 16.

라. 상정일자: 제307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6년 3월 2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유승분 의원(공동발의자)
- 검토보고: 김민석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송도국제도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광활한 관할 면적, 주요 국가 인프라 밀집 등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송도경찰서'의 조속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함.
-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2024년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유감으로 표명함.
-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지역 간 심각한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글로벌 국제도시에 걸맞은 치안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송도경찰서 신설 계획을 즉각 승인하고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할 것을 촉구함.

-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찰서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적의 부지 확보 등 제반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 나. 제안이유

- 우리 인천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3월, 송도국제도시의 치안 공백을 우려하며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그러나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나 변화를 보여주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
-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향후 신규 아파트 입주에 의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확정되어 있음. 또한 다수의 국제기구와 외국대학, 컨벤시아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해 내·외국인 방문이 잦아 고도화된 치안 및 안전 확보가 필수적인 지역임.
- 타 지역과 비교해 송도 지역은 관할 구역이 현저히 넓고,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해 각종 범죄와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원도심에 위치한 연수경찰서의 인력과 접근성만으로는 송도 국제도시 내의 치안 수요를 감당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송도경찰서 신설이 시급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 결의안의 취지 및 필요성

- 본 결의안은 인천시의회가 2024년 3월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경찰서 신설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에게 빈틈없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도경찰서의 조속한 신설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

#### □ 주요 검토의견

- 송도국제도시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으로, 국제 비즈니스와 IT·BT·R&D 기반의 첨단지식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거점 조성을 목표로 총 11개 공구로 나누어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26만 5,611명(10만 4,112세대) 규모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표 1]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개요

▶ 위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적: 53.36km <sup>2</sup> (現 37.98km <sup>2</sup> )
▶ 사업비: 21조 5,442억원	▶ 사업기간: 2003년 ~ 2030년
▶ 계획인구: 265,611명(104,112세대)	

- 2025년 12월 말 기준 연수구 전체 인구는 약 40만 9,040명이며, 이 중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약 23만 570명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전년대비 5.6% 증가(2024년 21만 8,268명 → 2025년 23만 570명)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와 개발사업의 지속에 따라 인구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표 2] 송도국제도시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2003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구수	2,274	139,580	159,326	185,975	192,580	194,704	207,447	218,268	230,570

○ 연수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약 800여 명으로 전국 평균(391~393명)의 약 2배에 달하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치안부담을 의미함. 또한 인천 지역경찰의 1인당 112신고 처리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업무 과부하가 극심한 상황임. 이러한 수치들은 현재의 치안 인프라로는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연수구 전체의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줌.

[표 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평균	411	400	393	393	391
연수경찰서	819	784	769	772	802

※ 출처: 경찰청 통계자료

– 또한, 현재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송도국제 도시까지의 거리가 상당함. 치안 서비스에서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강력 범죄나 긴급 상황에서 몇 분의 차이는 인명 피해의 규모를 좌우할 수 있음. 원도심에 위치한 경찰서가 송도국제도시의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표 4] 연수구 치안 인프라 현황

구분	기능	위치
연수경찰서	연수구 관할 본서	연수동(원도심)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지구대(연수서 소속)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2지구대	지구대(연수서 소속)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3지구대	지구대(연수서 소속)	송도국제도시 (2027년 9월 준공 예정)

- 송도국제도시의 면적(37.98km<sup>2</sup>)은 연수구 원도심(18.21km<sup>2</sup>)의 약 2배 수준이며, 또한 연수구 전체 면적(56.19km<sup>2</sup>)이 3개의 경찰서가 설치된 경기도 부천시(53.4km<sup>2</sup>)보다 넓은 것을 감안하면, 출동거리·접근성 측면에서 현행 단일 관서 체계만으로는 송도지역의 치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녹색기후기금(GCF), UN거버넌스센터,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고 포스코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 본사와 인천대, 연세대 등 대학 캠퍼스가 있음. 이에 따라 대규모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행사 안전 및 교통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인천경찰청에서는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송도경찰서 신설을 경찰청에 요청하였지만 치안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매년 심사에서 탈락하였음. 송도국제도시는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치안수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송도경찰서는 조속히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5] 송도경찰서 신설안 심의 현황

신청연도	심의결과
2019년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탈락
2020년	경찰청 심사에서 탈락
2021년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탈락
2022년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탈락
2023년	치안수요 부족을 이유로 경찰청 심사에서 탈락
2024년	경찰청 심사 대상에 미반영
2025년	경찰청 심사 대상에 미반영
2026년 3월	경찰청에 송도경찰서 신설 요구서 제출

※ 경찰서 신설 절차: 시도경찰청 건의 → 경찰청 분청 승인 → 행정안전부 조직 신설 승인 → 기획재정부 예산 승인

#### □ 종합검토의견

- 송도국제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며, 국제 기구·대학·마이스 산업 등이 밀집한 글로벌 도시로서 일반 지역과는 다른 고도화된 치안 서비스가 요구되는 곳임.
- 또한, 연수경찰서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800여 명에 달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고, 112신고 등 치안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결의 이후 2년간 중앙부처가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송도경찰서 신설을 재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 요약: 생략

## 5. 토론요지: **원안동의**

- 송도국제도시의 높은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빈틈없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도경찰서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4명(유승분, 김대영, 김명주, 임춘원 의원)

나. 반 대: 0명

## 6. 심사결과: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 7.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붙임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 1부. 끝.

[붙임]

##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연수구 전체 인구는 약 40만 9천 명에 달하며, 이 중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송도국제도시에 앞으로도 대규모 신규 입주가 계획되어 있고, 행정구역 면적은 연수구 원도심의 2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3개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부천시보다도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수는 390명 수준이나, 연수경찰서의 경우 여전히 800여 명을 상회하며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살인적인 치안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인천 지역경찰의 1인당 112신고 처리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업무 과부하가 극심한 상황에서, 인구가 급증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치안을 현재의 인력과 시스템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송도 주민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위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3월 '송도경

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중앙부처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송도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 송도의 치안 인프라 부족 문제는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 송도국제도시는 GCF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와 외국 유명 대학들이 입주해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도시이며, 미래 신산업의 거점인 동시에 유통·물류·관광·마이스(MICE)의 중심지이다. 이러한 송도의 특수성과 치안 수요를 고려한 적절한 치안 서비스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지방경찰서 신설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난 후에도 예산 확보부터 완공까지 통상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지금 당장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수년간의 치안 공백이 불가피한 마당에, 신설 논의가 더 이상 지연된다면 그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22만 송도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들에게 빈틈없는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경찰청은 송도경찰서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라.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의 넓은 면적과 특수성을 감안해 조속히 중심지역에 경찰서 부지를 제공하라.

하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2024년 촉구 결의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각성하고 지역 차별적인 치안 불균형을 직시하고, 송도경찰서 신설을 즉각 승인하라.